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6월 19일(금)

(음력 윤 4월 28일)

Пятница

19 июня 2020г.

№ 24(11689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6월 21일, 의료진의 날 기념

매년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직업 명절인 의료진의 날을 기념한다. 이날을 맞아 사할린주 의료체조 진료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최영수(안드레이) 씨를 소개한다. 의료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한 인재다.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학사립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국립기술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할린 설계연구소(사할린그라즈단프로젝트)에 취직해 몇 년간 근무했다. 4년전에는 사할린주 의료체조 진료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의 전문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최 엔지니어가 컴퓨터 관련 문제 해결에는 늘 도와준다고 존경스럽다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현재 최영수 씨는 <바르스>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전자의료카드와 환자 의료정보기록을 포함한 정보지원시스템이다. 의료진의 날은 그의 날이기도 하다.

(취재: 이에식 기자)

친애하는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

전문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 확신합니다. 전력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시고,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특별한 존경과 감사를 받을 만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건 시스템의 체계적인 작업 덕에 질병의 초기 단계를 발견하고 처방으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혁신의 결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료기관의 준비성은 대단히 향상되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새로운 전문가들도 유치되었으며, 현대적 의료장비도 갖추었고, 세심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방면에서 사업을 지속해갈 계획입니다.

사할린에서 의료적 혜택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많은 전문적 지식만 아니라 특별한 정신적,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친지들과의 교제, 휴식, 개별적인 계획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런 어려움에 충분히 대처하고 계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개인적인 삶에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보냅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하며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

사할린 지역은 코로나바이러스 19 초기 발견에 선두를 차지하는 지역 중 하나다. 해당 정보를 6월 17일(수)에 OTV-사할린 TV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직통 방송으로 전했다. 방송 초반에 전해진 통계로는 사할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88명, 105명은 회복, 283명이 치료 중이었다. 초기에 감염 사실을 확인한 덕분에 대부분의 환자는 경증으로 질환을 극복했다.

"6월에는 약 80%가 무증상 감염자들로 주변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이 있었다. 약 60%는 가족과 직장 주변인들에게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할린주는 코로나19 감염 초기 발견에 있어 러시아에서 선두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 10만 명 중 600명을 검사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사할린보다 4배 적게 진단 검사자가 이뤄져 1일 평균 88명의 확진자가 발생, 하바롭스크 변경에서는 3.5배 적게 진단되어 7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러시아 소비자 권리보호 감독청의 사할린주관리국 윌가 폰투소와 지도자가 밝혔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직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긴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사할린 지역으로 입도하는 승객들은 증가했어도 코로나19의 감염 유입 건수는 감소된 상황이다.

"우리는 사할린 국경에 실효성 있는 통제 관문을 세웠다. 사할린주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에게 전자 패스

방식을 취소할 계획은 아직 없다. 오늘 경제의 제분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성과도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것은 10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는 모두 활동을 폐쇄하고 300명 이상인 지금은 왜 완화하는지를 묻는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전적으로 이런 조건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지사는 설명했다.

방송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전적으로 치료를 맡은 돌린스크 구역 중앙병원과도 화상전화를 했다. 이 병원 전문의들은 하루 8시간-12시간, 때로 14시간-16시간을 질병과의 싸움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기숙사로 가서 쉬는데, 감염 위험 구역을 벗어나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에 앞서 주지사에게는 의사의 개인 보호장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유슈크에 따르면 의료진들을 위해 100% 차단되는 '타이빅' 형태의 작업복을 제공하여 돌린스크병원 의료진 중에 아직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방송에는 감염이 집중 발생했던 사할린주병원의 지역 혈관센터와도 연결했다. 6월 초 심혈관 질환의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수송되었다. 생명은 구했지만 코로나19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내 비접촉자 29명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거나 퇴원시켰고 의사와 간호사, 응급 후송 직원들은 25명의 환자와 함께 의료기관에 남아 격리되었다. 남은 환자 중 나중에 19명이 코로나19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주 유치원들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현재 사할린주에서는 6개 유치원이 폐쇄되었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5개, 토마리의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을 1개 유치원이다. 교육시설들은 방역 작업 후 러시아 소비자 권리보호 감독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재개한다.

한때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 수가 적은 것으로 확신했던 사할린주는 5월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하루에 약 2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여러 의료기관들에서 감염된 사례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할린주로 유입된 사례 보다 현지 사할린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었다. 쿠릴 지역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주 산기 센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했고, 4개월 된 영아에게도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밝혀졌다.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진단 속도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는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1주 후 의료진들은 이런 수치를 2배로 늘릴 계획이고 7월에는 하루에 약 5천 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코비드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

(본사기자)

러시아 의료진의 날을 맞아

사할린 중앙학 센터의 황수직 내과의사

"의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은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최근 7년간 사할린 중앙학 센터(암센터)의 내과의로 활약하는 황수직(본명 백수직, 러시아명 예카제리나 기나모브나)이다. 그가 담당하는 환자는 중앙학 센터의 3가지 과목(복부외과, 비뇨기과, 유방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이 제대로 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 전문의가 내과외과와 나란히 일해야 한다. 수술이나 화학요법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상태가 좋아야 한다. 특히 이런 환자들은 암 외에 다른 질병 증상,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이걸 바로 내과외과가 밝히고 지켜야 하는 일이다.

황 내과의는 "중환자들이 완치된 걸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순간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의사가 된 것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라고 말했다.

1954년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우다르니 마을에서 태어난 황수직 의사는 어릴 적부터 의사에 대한 꿈을 키웠다. 6남매(3남,3여)중에서 다섯째인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대식구를 그녀의 어머니 혼자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탄부였던 아버지는 예카제리나가 2살 때 돌아가셨다. 그래도 6명 자녀 중 5명은 대학을 나와 공부를 못한 어머니에게 큰 자랑과 기쁨이었다.

예카제리나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길은 좀 먼 길이었다. 모스크바국립대학을 졸업한 언니가 노보시비르스크에 파견받아 예카제리나도 그 도시에 있는 의대에 입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 한 과목에서 떨어졌다. 사할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간호사를 준비시키는 노보시비르스크 의료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공부하는 동안 병원에서 보조간호사 업무를 해왔다. 전문학

교를 졸업한후 사할린으로 돌아와 5년간 우글레고르스크 중앙구역병원에서 일했다. 2년은 내과에서, 3년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 일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더더욱 확실해졌다. 힘든 간호사 생활과 대학입학을 어렵게 준비하는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간호사 생활도 잘 하잖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했지만 그의 결심은 강했다고 한다. 간호사로 5년을 근무하다가 당시 의대 입학의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던 블라디보스토크 의대에 합격했다. 사실 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는 거의 10년이나 되었다. 이들에 비해 첫 2년은 공부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그녀는 말한다.

"대학에서 첫 학기에 고등수학, 물리학, 역사도 등을 배워야 했거든

요. 3학년이 되어야 공부하기가 많이 쉬워졌어요. 의료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있어서 라틴어도 좀 알고 있었고, 약물 이름도 잘 알고, 의학 용어도 낯설지 않았거든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련시대 때 대학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반을 잘 다져놓고 시작했죠."라고 황수직 선생이 대학시절을 회상했다.

대학 졸업(1986년)이 다가오자 결혼 문제가 다가왔다. 소련시절 당시에 대학 졸업생들은 정한 곳에 파견되었다. 미혼자인 예카제리나는 사할린 말고, 투바공화국으로 발령이 날 뻔했다. 서른이 넘었으니 다들 일찍 결혼하는 마당에 친구나 주위 사람 모두가 시집, 장가를 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계신 사할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예카제리나에게 소꿉친구가 신랑될 사람을 찾아주고 있었다. 그의

소개로 켈놉스키 탄부의 수석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는 동포와 만나 서로 마음에 들어 속히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이 늦게 결혼한 사연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대신 많은 동생들을 키워 교육시키고, 장가를 보낸 데 있었다고 한다. 남편이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남편 사는 사할린으로 예카제리나는 파견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글레고르스크 중앙구역병원에 내과외과로 들어가 근무했다. 딸들을 낳은 다음에는 켈놉스키 마을 진료소에서 내과외과로 근무했다. 그가 담당하는 환자들은 주로 탄부들이었다. 그녀는 탄부들의 직업병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한 번은 탄광에 내려가서 석탄 먼지로 인해 결막염에 걸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1998년에 남편이 탄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국가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아파트집을 제공받아 이사하고, 아무

것도 모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병원을 찾아가자 바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그는 입원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외래 진료를 담당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응급환자가 많으니 즉시 판단하여 어느 과목에 입원시켜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했다.

"지방 마을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것 보다 도시에서 일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왜냐면 응급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골에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실력과 지식, 판단력을 믿을 수밖에 없죠."라며 황수직 선생은 시골과 도시 의사 생활의 차이를 설명했다.

황수직 의사는 중환자실 진료가 마음에 든다고 한다. 긴급 상황에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든든한 의사로서 경험도 풍부하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새로운 스포츠 센터가 비즈니스 산실의 지원으로 문을 열다

6월 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성인 및 아동이 동양무술과 요가를 배울 수 있는 '젠 도조' 스포츠 센터가 새로이 열렸다. 이 기획은 사할린 기업인 발전기금의 비즈니스 산실이 주도한다.

이날 자체 청소년 공수도팀의 탄생일을 기념하여 공수도 겨루기 훈련과 격파 시범을 선보였다.

학교 교장이자 사범인 오 사샤에 따르면 수년간 스포츠 센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실현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서 제게 동양무술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셨다. 교쿠신카이 공수도(극진회 공수)를 나는 학교에서 배웠으나 후에 대륙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느라 스포츠를 배우지 못했다. 사할린으로 돌아왔을 때 스포츠 훈련이 다시금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아이들에게 스포츠 교육을 하고 싶었다."고 오 사샤는 말한다.

이 창업가는 청소년 공수도팀을 빠른 시간에 모집했다. 적절한 가격의 임대 장소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3년간 팀의 훈련은 4번의 이동을 견뎌냈다. 올해 사범은 자체 스포츠 센터를 개장하기로 했다. 자신 아이디어를 삶에 실현시키는 그녀에게 사할린주 기업가 발전기금의 비즈니스 산실이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학교의 사업 비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며,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찾아주었다. 현재는 교육부의 인허가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산실은 약 15개의 기획을 생활에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소피아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 산실은 교육, 의료, 스포츠, 관광, IT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13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ся нов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Дзен додзо», в котором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осточными единоборствами и йогой. Этот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резидентом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честь своего дня рождения команда юных каратистов провела показательную тренировку со спаррингом и разбиванием досок. Как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школы и тренер Саша О, идею создания спортивного центра она вынашивала много лет.

— Страсть к восточным единоборствам мне привил в детстве отец. Карате киокусинкай я занималась в школе, потом жила и училась на материке, спортом не занималась. Когда вернулась на Сахалин, поняла, что меня снова тянет на тренировки. Более того, я поняла, что хочу обучать детей, — рассказала Саша О.

Начинающ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отметила, что группу юных каратистов она набрала быстро. Гораздо сложнее было найти зал с не очень дорогой платой за аренду. За три года занятий ее команда пережила четыре переезда. В этом году тренер решила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ый спортивный центр. Претворить в жизнь эту идею сахалинке помог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областн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пециалисты оценили затраты проекта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провели необходимые расчеты, помогли найти банк, выдавший беззалоговый кредит. Сейчас идет работа по лицензированию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помог претворить в жизнь около 15 проект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ь Софья Ким, это инициативы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туризма, IT-технологий.

러시아와 터키,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19 진단 시스템 확보

한국 KT & G회사는 코로나 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에 1억 원 상당의 COVID-19진단 시스템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5월 초에 이 회사는 6,300개의 진단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정부에게도 전달했다.

매일 8천 건 이상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기록되고 이런 지표가 계속되는 러시아는 확진자 수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유럽 지역 중 가장 피해가 큰 국가이기도 하다. 터키는 현재까지 확진자 17만1천

명 이상이 보고되었고, 6월 3일 터키에서 3천 건 이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총 확진자 수는 210만 명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터키는 코로나 19 진단 시스템이 심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중에 한국의 KT & G 회사는 러시아 칼루즈스카야주와 터키 보건부에 총 7,600개의 코로나19진단 시스템을 제공했다.

Россия и Турция получили системы тестирования COVID-19 из Южной Коре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KT&G безвозмездно передала системы диагностики COVID-19 на сумму 100 миллионов вон России и Турции, где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коронавирус. В начале мая компания также передала 6 300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ндонезии.

Россия, где ежедневно регистрируется свыше 8 000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продолжает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занимать третье место в мире и остается самой пострадавшей страной в Европе.

Турция до сих пор сообщила о более 171 000 случаях заражения. Только 3 июня в Турции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свыше 30 000 тестов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а их общее число превысило 2,1 миллиона. Как Россия, так и Турция испытывают острую нехватку систем диагностики.

KT&G поставил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7 600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в Калужскую область России и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Турции.

러시아의 날, 붉은 광장에서 사할린에 대한 노래가 울려 퍼지다

6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통제 이후 첫 대형 콘서트가 열렸다. 청중들 앞에 국내 에스트라다 스타들이 출연한 가운데 사할린 홈스크 출신의 유명한 가수 이고리 니콜라예브도 참가했다. 이날 이고리 니콜라예브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그는 작은 고향을 노래한 <사할린의 하늘 아래>라는 그의 최신곡 하나를 불렀다. 그는 콘서트의 일부를 인스타그램 자신의 페이지에 올려 동쪽 끝 동향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변함없이 사할린에 대한 사랑을 알렸다.

진심어린 인사는 사할린 사람들과 한때 사할린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8면에 계속)

사할린 소방관들에게 새로운 차량 지급

사할린과 쿠릴의 소방관들에게 최신의 특수 차량이 보급됐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난 6월 17일(수) 주정부 청사앞에서 이 차량의 열쇠를 전달했다.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 예산으로 특수차량 8대가 확보된 가운데 주 정부는 '우랄' 5대를 사할린의 각 지역(우글레고르스크, 돌린스크, 스미르니흐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에 전달했고 가까운 시일 내로 쿠릴 전 지역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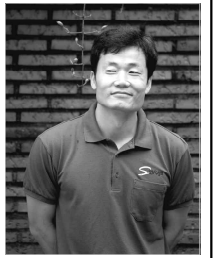
"소방관들에게 특수차량 전달은 의미가 크다. 화재 진화 시 현대적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주택의 화재로 주민들이 집을 잃었던 사건을 기억한다. 이들에게는 전적인 지원을 했다. 소방관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를 하기 위한 우수 차량이 필수적이다." 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설명했다. '우랄' 신형 물탱크 차량에는 물6톤 적재가 가능하다. 모든 특수 차량에는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장비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취재: 이에식 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챔피언과 두 여인

자전거 잃어버리기 챔피언을 뽑는다면 일등 할 자신이 있다. 초등학교 일학년 때 자전거를 배운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대씩 열두 대를 잃어 버렸다. 대학 다니면서 두 대, 회사 다니면서 두 대. 합치면 모두 열여섯 대다.



잃어버렸다는 건 내 책임이 크다는 뜻이고, 도둑맞았다고 바꿔 말하면 도둑이 나쁘다는 의미가 강하다. 도둑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솔직히 반성하자면 열여섯 대를 도둑맞은 데에는 내 부주의가 큰 몫을 했다. 개미떼 한 가운데 과자봉지를 열어두고 개미만 탓할 수는 없다.

자전거 열여섯 대를 합치면 중고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 된다. 자전거 열두 대를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존경스럽다. 나라면 내 아이에게 그 많은 자전거를 사줄 수 있을까? 내 사랑의 크기는 열두 대 만큼은 아니고 다섯 대 만큼이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없는 살림살이에 부담스러운 지출이었을 테지만 어머니는 자전거를 도둑맞고 돌아온 나를 야단치신 적이 없다. 사라진 자전거를 찾아 헤매다가 밤늦게 지쳐 돌아온 아들, 아끼던 자전거와 헤어져서 마음에 멍이 든 아들에게 말없이 등을 다독여 주는 어머니의 손길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지게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도둑맞고 다시 새 자전거를 만나며 꼬마였던 나는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 내가 사랑했던 자전거들의 기억은 동화책 네 권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전거 동화책을 어머니에게 드리며 "어머니가 사주신 자전거들이 이렇게 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웃기만 하셨다.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하셨을까?

마지막 자전거를 잃어버린 건 팔 년 전이다. 그 뒤로 자전거를 한 대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두 번째 여인의 힘이 컸다.

아내는 내가 열여섯 번째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와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한 마디를 했다.

"한 번만 더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평생 자전거를 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뒤로는 어딜 가도 자전거를 보이는 곳에 묶어 놓거나 실내에 넣어 둔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자전거가 아니다.

자전거를 통해 교훈을 하나 더 얻었다. 같은 여자여도 어머니와 아내는 다르다. 둘 다 좋긴 하지만 착각하면 큰일 난다.

광주에서 김남중

프라우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올해 3월 말에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재외동포의 보건 및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현재 재단과 함께 1세대를 위한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 초청진료 사업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사할린 현지에서 1세대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이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초청 진료사업에 대해서 아직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현지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무조건 실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1일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신경외과 의사, <건강관리프로그램>담당자인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 치매 예방활동의 담당자인 배영희 주 한인협회 사무국장, 강팔용 동포가수 등이 홈스크 한인회 회원들의 인솔로 홈스크 지역의 프라우다 마을 1세 어르신들 9명을 찾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준 높은 전문가로서 섭외된 알레리 메르쿠리예브 신경외과 의사는 이날 할머니들에게 좋은 치료 상담을 해주어 어르신들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만족해 했다.

작년에 실시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의사의 진료와 상담이 이뤄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상도 마련하고, 공연도 하며 치매 예방활동도 했다. 또한 이번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쌀과 마스크를 선사했다.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에 따르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프라우다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고, 봉사단은 건강상 행사를 못 오신 4명의 할머니들의 맥을 찾아 진료와 의료 상담을 하고 쌀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박기동 소장과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도 프라우다 마을의 할머니들을 찾아 떡을 나누어드렸다고 전해졌다.

프라우다 마을 어르신들은 건강을 걱정해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국제보건의료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재미있었고,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한국 노래까지 불러주어서 어르신들은 정말 흐뭇해 했다.

올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의 5 - 6개 지방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배순신 기자)

(사진: 주한인협회 제공)



재외동포재단, 제23기 초청장학생 19개국 120명 선발

지구촌 한민족의 상생발전을 견인할 인재로 육성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올해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페인 등 19개국 120명(석·박사 과정 : 85명, 학사 과정 : 35명)을 선발했다.

초청장학생 신청은 매년 2~3월 경 한 달 정도 진행되며,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들을 거주국 우리 공관에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코리안넷 및 관할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청장학생에게는 2~4년간 장학금(매월 생활비 90만원, 왕복 항공료 1회, 보험료 등) 지원과 한국어 실력이 미흡한 장학생에게 한국어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모국문화체험과 장학생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부여된다.

동포재단은 1997년부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을 시행해왔으며, 누적 초청장학생수는 약 1,400명에 이른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21세기 격동의 시대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за год 5,3 миллиона раз посетили врачей

Ко Дню медицин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отмечаемого в этом году 21 июня,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тистики подготовили некоторые цифры.

В 2019 году в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без микропредприятий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ходили 31 больнич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97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 общей мощностью 12,7 тыс. посещений в смену), 91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141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всех типов, 35 дермат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х отделений, 21 зубопротезный кабинет, 17 наркологических отделений.

Коечный фонд круглосуточных стационаров составил 5555 ко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8 годом на 8,3%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коек стационаров сосудистой хирургии, на 7,0% –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ических, 3,5% –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х.

На конец 2019 года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населению оказывали 3104 врача все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64 врача в расчете на 10 тыс.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в 2018 – 58). Из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врачей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приходилась на врачей терапевт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 22,4%,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 11,3% и педиатров – 8,5%.

Численность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в 2019 году составила 6680 человек (137 человек в расчете на 10 тыс.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 132). Из них 70,1% – медицинские сестры, 10,4% – фельдшеры, 3,9 – акушерки.

Высшую и первую категории среди врачей имел 871 человек, или 28,1%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врачей, из них 80 анестезиологов-реаниматологов и токсикологов, 70 терапевтов, 68 педиатров, 59 акушеров-гинекологов, 57 хирургов, 37 неврологов, 28 травматологов и ортопедов, 26 офтальмологов, 22 стоматологов, 20 онкологов, 19 психиатров, 17 кардиологов. Из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высшую и первую категории имели 30% работников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персонала. В их числе – 1462 медицинские сестры, 138 фельдшеров, 112 акушеров, 61 лаборант, 7 зубных врачей.

Каждый жител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ся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к врачам в среднем 11 раз. Вс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5,3 млн посещений врачей (включа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и к зубным врачам). Это на 3,2% больше, чем в 2018 году.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лному кругу организаций за 2019 год составляла 86874 рубля и возросл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8 годом на 23,8%, реальный рост (учитывая рост цен на товары и услуги) составил 19,4%. В январе – марте 2020 года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составила 89 544 рубля и возросл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нварем – мартом 2019 года на 12,8%, в реальном выражении, с учетом инфляции, увеличилась на 9,0%.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рачей (кроме зубных), включая врачей –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трукту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I квартале 2020 года составляла 173 304 рубля,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 88344 рубля, младш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 75 388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градили лучших знаток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Недавно в сеу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прошел ежегодный конкурс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корейских вузов.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уется Институтом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и посо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с 2011 года и на этот раз отметил свой десятилетний юбилей.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организацию конкурса пришлось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проведя его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шили дать шанс проявить себя студентам,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ли и проходили обучение 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СНГ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Поэтому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лишь те студенты, срок языковых стажировок которых составляет не более двух лет. В борьбе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знато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ошлись около 40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ли самые разные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емами юбилейного конкурса стали 75-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



Посольство РФ в Сеуле

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а также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стала студентка Ли Га Хи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16 июня в здани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уле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Главная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студентка Ли Га Хи в качестве приза получила билеты по маршруту Сеул-Москва-Сеул от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Участники, занявшие места со второго по четвертое,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призами от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К. Остальные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от посольства РФ 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з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ндрей Борисович Кулик поздравил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 прекрасн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призвав молодых корейских знаток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нести самый активный вклад в сближение России и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Пхеньян взорв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Мун Чжэ Ина

Во вторник, 16 июня, вл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сполнили обещанное, взорвав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Кэсоне межкорейский офис связи. Хотя данный шаг Пхеньяна не стал пол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но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о шокировано, тем более, что все было сделано в подчеркнуто-демонстративной и оскорбительной для Сеула манере. Данный шаг Севера отбросил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эпох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 конфликта, сведя на нет усил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а, который сделал многое, чтобы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15 июня, в Сеуле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метили 20-летний юбилей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подписана в 2000 г.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Дэ Чжуну в Пхеньян, где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ждем Ким Чен Иром. Нынеш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честь юбилея выступил с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ью, в которой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движения по пути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римирения.

Знающие люди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галстук, который Мун выбрал для этой церемонии - светлоголубого, небесного цвета. Это был тот самый галстук, в котором два десятка лет назад был Ким Дэ Чжун, подписывая декларацию. Когда после смерти экс-президента Кима разбирали его гардероб, то нашли этот галстук. Друзья покойного лидера передали галстук Мун Чжэ Ину, завещая ем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в плане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и объединения двух част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Вакцина-кандидат против COVID-19 будет испытана до конца июн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сред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К, до конца июня пройдет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обезьянах вакцины-кандидата против COVID-19. При этом разработчик вакцины не назван.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тобрало ряд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х фир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казав им поддержку в разработке вакцин и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ыполняют рекомендацию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препаратов-кандидатов и вакцин сначала проводить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животных, а после этого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на людях.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Celltrion ранее объявила, что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животных её препарата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на основе антител дал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Он в сотни раз снизил силу вируса SARS-CoV-2, который вызывает COVID-19.

KBS World

Власт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запретили доступ в пограничные районы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пыток отправить через границу на Север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листовк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приграничные местности запретными зонами. С 17 июня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недоступными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ей листовок стали прилегающие к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ов Кимпхо, Кояна, Пхачжу, Пхочхона и уезда Ёнчхон-гун.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любые попытки отправить листовки будут строго пресекаться. Нарушители подлежат немедленному аресту и могут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ы тюремному заключению сроком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у до 10 млн вон (8.500 доллар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и сохранен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ласти провинции обещают мобилизовать все имеющие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защиты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522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Утверждены председатели шест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15 июня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были утверждены председатели шест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при участии 187 депутатов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ряда других. Депутаты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и будущего на заседании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Ранее стороны не могли договориться по поводу кандидатуры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 судебным вопросам. Этот пост в итоге занял депутат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Юн Хон Чжун. Помимо этого, утверждены председатели комите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торговли, по вопросам обороны, а также по вопроса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Сразу после начала заседания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к Пён Сок заявил, что народ не простит затягивания процесса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итетов в нынешних кризисных условиях. Оппозиционная Объединённая партия будущего выразила протест против действий правящих сил. Глава фракции Чу Хо Ён заявил, что «это день начала диктатуры одной партии». Он сообщил о намерении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взяв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 судебным вопросам заня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ящих сил. Спикер Пак Пён Сок сообщил, что 19 июня будут выбраны председатели остальных двенадцат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трения сторон лишь усилятся.

В России обеспокоены события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России обеспокоены события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заявил во вторник журналиста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митрий Песков. «Мы призываем все стороны к сдержанности», - сказал он, добавив, чт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планирует проводить телефонные контакты на высоком или высшем уровне п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выступая в тот же день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с верхов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ЕС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полит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Жозепом Боррелем, отметил, что Россия всегда выступала «за развит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в интересах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й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оссия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торо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граничит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Уже по одной этой причине, не говоря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связях с корейским народом, мы неизмен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укреплении там прочного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Послу Японии выражен протест из-за корейских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Посол Японии в РК Кодзи Томита был вызван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ИД.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Ли Тхэ Хо выразил ему протест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о вопроса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наследия никак не упомянуты корейские жертв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На ряде из 23-х объектов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эпохи Мэйдзи, включённых в 2015 году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работали корейцы, принудительно направленные туда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Однако об этом нет никаких упоминаний. Следовательно, Токио не выполнил рекоменд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вета по памятникам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ЮНЕСКО подробно разьяснять историю каждого объекта, включённого в список. В воскресенье группа япон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посетила центр, который был открыт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но вскоре закрылся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Усиленный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РК продлён на неопределённое время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числа групповых инфекций в Сеуле, Инчхоне 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длить усиленный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на неопределённое время. Как заявил в пятницу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Пак Нын Ху, он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не сократится до однозначных цифр.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е недели 96,4%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выявленных в стране, приходится на столичный регион. Если ситуация не улучшится, не исключено дальнейшее ужесточение карантинного режима. (RKI)

Пхеньян взорв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Мун Чжэ Ин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Не только гардероб Мун Чжэ Ина, но и все его предшествующие шаги показывали, что он не забыл наказ друзей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С момента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в мае 2017 г. Мун постоянно слал призывы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глашая нормализ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Перед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ой в Пхенчхане его призывы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услышало, после чего наступило стремительное межкорейское сближение, включая три саммита Мун Чжэ 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в 2018 г.

Мун также прилагал большие лич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мочь диалогу США и КНДР и тут тоже сыграл немалую рол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трех личных встреч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а.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особенно в 2018 г., стали говорить о новой эпохе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и стали обсуждать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ближения.

Однако во вторник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все это уже в прошлом, отношения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вернулись к конфликту и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а все достижения Мун Чжэ Ина пошли прахом.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ейчас это выглядит так.

16 июня в 14 часов 49 мину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взорвали зда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офиса связи, которое находило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недалеко от города Кэсон рядом с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й. Первоначально это здание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как офис меж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урируя вопросы работы совместного технопарка в Сеуле. Затем,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промзоны, здание простаивало, но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27 апреля 2018 г. подписали в ходе саммита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декларацию,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решили открыть в этом же стро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й офис связи,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работать "365 дней в году, 24 часа в сутки", обеспечивая постоянный контакт Юга и Севера.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здания сидели южане, а на четвертом северяне, совещания же проводили на третьем. Данный Межкорейский офис связи работал до февраля этого года, но потом его закрыли из-за эпи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еуле надеялись, что временно, но оказалось, что навсегда. Днем во вторник воздух содрогнулся от взрывов и здание, оседая, рассыпалось.

Конечно, после сделанных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нескольких заявлений КНДР, когда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сылаясь на заброску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активистам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листовок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тали угрожать Сеулу разными карами, включая ликвидацию офиса,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 исключали такого поворота. Но все же надеялись, что угрозы останутся только угрозами, а КНДР согласи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тем более, что власти Юг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и пресек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тех, кто направлял листовки.

Потому шок в Сеуле от известия о взрыве офиса был сильным.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шло экстренное совещание и по его итогам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выразил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односторонн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хеньяна. При этом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упредила, что при попытке Севера предпринять новые действия по нагнета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Юг будет "решите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Минобороны РК также заявило, что намере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силы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их граждан и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Судя по действиям Пхеньяна, все было обставлено так, чтобы это выглядело как оплеуха лично Мун Чжэ Ину и крах его политики. Взорвали офис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й был результатом первой встреч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а с Ким Чен Ыном и символом новой эры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а такж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успешности подхода Муна. Основные заявления и угрозы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озвучивала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с которой Му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щался, сидел рядом на трибунах в ходе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Мун и Ким Ё Чжон, когда общались, то с лиц их не сходили широкие улыбки, а атмосфера напоминала встречу дяди с любимой племянницей. Взрыв же произошел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сле 20-летия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15 июня 2000 г., которую считают одним из краеугольных камней процесса примир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Ну и само здание офиса связи, хотя и находилось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затем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и содержалось на деньги Сеула. Общие расходы на все это составил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27,7 млрд. вон или почти 23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которые заплат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и. Здание, кстати, было весьма симпатичным и современным, украшая общий пейзаж. Теперь нет ни здания, ни меж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все усилия Мун Чжэ Ина пошли прахом, а Север еще дал понять, что это лишь только первый шаг, а скоро последуют иные.

Понятно, что вряд ли только листовки стали причиной для решения Пхеньяна сменить оттепель новым жестким "ледниковым периодом". Скорее всего Север пытается сделать Муна политическим заложником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е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целей –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 и заставить Сеул отойти от США.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евер недоволен тем, что Юг не решается идти поперек линии США, которые запрещают круп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пока тот не начнет "сдавать" св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Но разве стоило все делать именно в такой манере?

После подобных действий КНДР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люди в Южной Корее, где, если говорить честно, многим (а может и большинству) безразлична судьба Севера, будут задаваться вопросом: "А зачем все это было? Зачем тратились все эти наши деньги, энергия и усилия президента, министров,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Зачем было 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едовольство США, которые уже давно косо смотрят на реверансы Муна в сторону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резонный вопрос: "Как мож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Пхеньяном, если всегда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в один день он по какой-то причине просто придет и взорвет все то, что с таким трудом сделали?"

Кроме того, давайте пофантазируем, что реально могла бы дат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Югу кроме слов о большом братстве и дружбе, если бы Мун Чжэ Ин реально пошел наперекор СШ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анкциям и стал б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 реально помощь) с Пхеньяном? А вот от США б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получила бы множество проблем за подобную строптищность, что вылилось бы в резк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для которых, повторимся, рассказы про КНДР – что-то очень далекое и не связанное с их ежедневной жизнью.

Мун Чжэ Ина по-человечески жаль.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он и многие люди из его ближайшего окруж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рались что-то сделать в плане сближения с КНДР, продвигали, кое-чего добились, пойдя даже на ухуд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теми, ком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нравится.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Мун вынужден учитывать все аспекты и интерес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сех сфер и групп. В том и состоял замысел, чтобы начать движение в сторону реального сближ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пока в возможных рамках, а уж потом расширять этот диапазон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Пхеньян же, как видно, захотел от Сеула быстро и очень много, а когда убедился, что Юг не готов это сделать, то Север решил просто хлопнуть дверью, побив напоследок еще по суду,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разно.

Судя по настрою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и его советников, а также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все случившееся для них - конечно же сильный удар, но они вряд ли пойдут на эмоциональные ответные шаги и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призывать Север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Правда КНДР,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вряд ли ответит взаимностью,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 даже наоборот вполне может пойти на ново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Этим и опасен нынешний разворот - всё может опять вернуться к ситуации 2016-2017 гг., когд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на грани войны.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на этом вся реаль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Мун Чжэ Ина завершена и что-то новое будет пытаться делать новый лидер Юга, которого изберут корейцы в мае 2022 г. Правда, если победит оппозиция, то Пхеньян вряд ли сможет надеяться на ту активность и мягк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которую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ейчас Мун Чжэ Ин. Консерваторы Юга будут вести себ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а куда жестче, что и показал опыт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ов Ли Мен Бака и Пак Кын Хе в период с 2008 по 2017 гг.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 День памяти и скорби, 22 июня, в 18:00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пройдут бесплатные показ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фильма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Простые главные слова.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Ж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эти картины в кинотеатрах и киноза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год празднования 75-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мы хотим напомни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о цене Победы, которую заплатил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 Важно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событ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их героическими подвигами, отдавая дань глубокого уважения героизму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этих люд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предлагают к просмотру фильм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режиссера Сергея Бондарчука по одноимённому рассказу Михаила Шолохова. Такж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казы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ленты Сергея Майорова, в которой прозвучат стихи поэтов, не вернувшихся с войны, в исполнении современных популярных артистов.

Осно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станут ККЗ «Октябрь» и ККЗ «Комсомоле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казы пройдут и в Аниве, Долинске, Томари, Углегорске, Холмске, Поронайске, Курильск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Тымовском и Быкове.

По рекомендациям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для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рассадка зрителе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соблюдением дистанции на расстоянии не менее 1,5 мет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елогонка «Анивская весна» собрала более 60 участников

25-километровый заезд прошёл на автодороге Огоньки – Невельск. Чтобы соблюсти меры п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при помощи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Strava. Она не только считает результат гонки, но и показывает ежедневную динамику тренировок, а также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сравнить свои достижения со спортсменами со всего мир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участие проходила заранее и дистанционно. На месте спортсменам оставалось получи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номер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тартовать по сигналу электронного табло. Минимальное время старта между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авляло 30 секунд, поэтому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В этом году соревнование можно счит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м, так как к заезд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любители велоспорта из Австралии и США.

– Велогонки – это мое хобби. Я живу и работаю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19 лет, люблю разные виды спорта, есть опыт участия в триатлоне. Об «Анивской весне» узнал от друзей и решил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атегории 46+. Из-за режима самоизоляции я не смог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гонке, все что оставалось – это заниматься на домашнем велотренажере, –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из Австралии Морис Крэйг.

Спортсмены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трассой и попутным ветром на обратном пути к финишу. Опытная участница соревнований Светлана Власенко оценила трассу, как очень комфортную, с достойным асфальтом и небольшим трафиком движения.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были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ы, но и любител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Крайне редко,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иходят люди без опыта в спорте. Большинство объединяет любовь к велогонкам.

–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мы проводим, чтобы люди попробовали свои силы, проявили активность. Как бы ты ни провел тренировку, ничего не заменит соревн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 мощный толчок с точки зрения мотивации, –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ни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ексей Боженко.

В связи с новым форматом проведения заезда, на обработку результатов, у судейской бригады ушли почти сутк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ялось 15 июня в 15:00 в Центре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о адрес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л. Хабаровская, 49.

Следующую велогонку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на Ловецком перевале. Но всё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10 инициати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ли в проект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Среди них – спор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объекты ЖКХ, а также мест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каждой иде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ят до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тоги голосования подвели 12 июня на одной из площадок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 Друзья,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Днем России! Это очень значимая дата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Она показывает, насколько мы едины и сильны. Мы готовы двигаться вперед навстречу нашему будущему,

вместе решать задачи любой сложности. Кстати, об этом говорят и ваши проекты. Вы долго над ними работали и теперь, я уверен, они сделают города и села островов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и. Вы – большие молодцы.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и, – подчеркнул Алексей Белик.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набрал проект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Застава» в Ногликах. Его поддержали более 3900 человек. Нов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явится на месте бывшей военной части. Площадь объекта – 11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 беседки, столики, скамейк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с песочницей и качелями. Для любителей физкультуры предусмотрят спортивные снаряды и дорожки для катания на велосипеде и роликах. Яркими архитектурными решениями станут деревянный кит и модель планеты Земля, выполненная из бронзы.

– Мы хотели, чтобы сердцем нашего парка стал символ мира. Решили, пусть это будет наша родная планета. А кит, наверняка, очень понравится детям.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наш парк будет выходить на набережную реки Ноглинка. Вообще у нас нет таких мест, где можно отдохнуть всей семьей. Теперь оно появится, – поделился один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проекта Юрий Величк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жители предложили построить набережную реки Корсаковка. В районе пересечения улиц Речной и Октябрьской появятся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освещение, зеленые зоны и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Набережная украсит и реку Лютог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Там обустроят пешеходную зону, велодорожки, подпорную стенку, установят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и урны. Еще один успешный проект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 лыжероллерная трасса в Троицком.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вошел в ряды финалистов с проектом стадиона в Шахтерске. Он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будет отвечать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 предусмотрят ливневую и дренажную канализации, ограждение,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освещение и трибуны.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с экстрим-зоной появ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него голосовали, в том числе, известные российские скейтеры и велосипедисты.

Жители Охи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й бани. Туда островитяне планируют ходить семьями и с друзьями. Одноэтажное здание сможет вмещать до 30 человек. Наружные и внутренние стены будут каменными, а кровля – из металлочерепицы.

А Томарин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Ильинском. В нё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состязания окруж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 У жителей села и работников ГЭС-2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самых раз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 в футболе, волейболе, баскетболе, большом и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Также в комплексе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секции по единоборствам. Будет предусмотрен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душевые и гардероб,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проекта Николай Недашковский.

Жител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риобрести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здание под автостанцию «Перекресток». Э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пассажи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и.

В селе Хоз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троят очи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для водопровода.

Инициатив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Напомним, опрос за инициатив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сво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роходил с 1 по 20 мая на портале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На общеобласт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вышли 29 проект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от жителей 16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щий бюджет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й распределяют между собой победители, – почти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умма сред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запустивших у себя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екты.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граммы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олее 300 рабочих мест создали благодаря ТОР «Южная» на Сахалине

Итог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ли темой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Резиденты «Южной» располагаются на площади 12,5 тысяч гектаров. Заявлено к реализации восемь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Из них два находятся в стадии бизнес-плана, три –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и еще три проекта реализован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ложения превысили плановые значения – инвесторы вложили 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 создали 314 рабочих мест.

– Самая важ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помогает решать ТОР «Южная» – это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этот вопрос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я-резиденты являются крупнейши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овощей, мяса и моло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ахалинцы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круглый год приобретать местную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ерено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здавая благоприят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климат для бизнес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построил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площадью 8 гектаров для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выращивания овощей. АО «Мерси Агро-Сахалин»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сви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62 тысячи голов в год в селе Таранай. ООО «Невод» ведет капита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вод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малой мощности.

–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ведется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нститутами развития и с учетом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ых для каждой ТОР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ланов развития,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митрий Тетенькин. – Важнейш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для нас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резидентам открывать предприятия в намеченные сроки, создав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обеспечивать ускоренн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На ТОР «Южная» выполнили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озда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строены подстанции «Ново-Троицкая» и «Таранай», объекты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порного коллектора в Троицком.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Сергей Тырцев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ируемом расширении «Южной». ООО «Партнерство» намерено построи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ог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класса А.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по этому проекту.

Более 600 ребят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нут изуч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запущен уникальный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16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в формате би- и полилингвальных площадок.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рт проекта,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го стали 75 педагогов, состоится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Но в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уже иде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28 «Матрешка» ввели две ставки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игры с малышами. Полилингвальную среду здесь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старших группах. Педагоги Виктория Мавлеткулова и Ольга Крюкова в занимательной форме изучают с ребятами англий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языки.

– Дети активные, нас всегда встречают радостно, – поделилась Ольга Крюкова. – У нас нет занятий – только игра. Суть не в том, чтобы научить ребенка разговаривать на разных языках, а в том, чтобы развить его мыслите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 Каждый язык ребенок воспринимает как родной. Детский мозг задействует свои ресурс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возникает языковая догадка. Это очень позитивно влияет на весь процесс мышления. Ребята ни разу не слышали, как мы общаемс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ни вообще уверены, что я китайка, а Ольга Сергеевна – англичанка, – добавила Виктория Мавлеткулова.

Лингвисты общаются с малышами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не менее трех часов в день. Для педагогов обязательно знание детской психики. Концепция проекта также предполагает участие носителей языка и привлечение студентов языков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практики.

Один из координаторов проекта –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им садом Ольга Лукьянова –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с подобной языковой моделью сахалин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института пробле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врика» в Москве. Эта идея сразу захватила их –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ект, педагоги победили в конкурсе и получили субсидии.

Отметим, что свой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на площадках втор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рума. Мероприят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3천명 이상의 학생들 2020년 국가 수능 응시 예정

사할린 지역에서 감염병 위생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31개 학교의 316개의 교사장에서 국가 수능시험을 치른다.

사할린주 교육부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20년 국가 수능 특별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국가 연합 수능시험 응시자 중 올해 학교 졸업생 2796명, 재수생은 263명, 중등 직업학교 졸업생 132명이다.

국가 연합 수능시험은 대학에 입학할 원하는 학생만 치르게 되고 남은 학생들은 시험 없이 성적표만 받게 된다.

감염병 확산 상황의 조건 속에서 수능 응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전 수능 교사장에서 위생 방역 실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교실 소독, 체온 측정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험 응시생들의 좌석은 각1.5미터의 거리를 두고 배치하며 시험 전과 후 모든 교사장에 전체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이 전했다.

사할린의 학생들을 위한 수능 시험은 7월 3일부터 시작하여 이날 지리와 문학, 정보통신 과목을 치르며 7월6일, 7일에는 가장 규모가 큰 러시아어, 7월 10일에는 전문 수학, 7월 13일은 역사와 물리학, 7월16일에는 사회상식과 화학, 7월20일에는 생물학과 외국어 작문, 7월 22일과 23일에는 외국어 구술시험을 치른다.

올해 가장 인기있는 과목으로 선정된 사회상식 과목은 사할린과 쿠릴의 학생 1900여 명이 응시를 원했다. 전문 수학 과목의 응시 수준은 전과 같이 1450명의 졸업생들이 선택했다.

선두를 차지한 선택과목은 생물학, 역사, 물리학이다.

7월 중 적당한 이유로 응시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8월에 추가 응시 기간이 정해졌다.

시험 일정은 모든 시험 응시생들이 대학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우리말로 깨달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언급하고 있지만 세상을 휩쓴 전염병이나 전쟁 등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전염병은 문화를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의학의 발전을 이루기도 하겠지요. 어떤 결과는 힘든 시간이 가져다준 축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결과는 우리들 마음에 쓸쓸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았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세상을 바꾼 혁명도 우리를 급격히 바꾸어 놓습니다.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은 인류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변했음도 물론입니다. 수렵 채취의 시대에서 농업 목축의 시대로 바뀌었을 때 놀라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긴 시간을 지나며 천천히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농경사회가 산업혁명을 맞이했을 때는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일이었을 겁니다.

수천 년간 그다지 변하지 않았던 문화가 짧은 시간에 변화합니다. 기차와 자동차, 비행기를 본 농경사회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놀라움과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비행기를 처음 본 게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이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탄 실은 공포의 비행체는 말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혁명도 놀라움과 두려움, 쓸쓸함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구분할 때 문자를 주요한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의 전환은 많은 사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자의 사용도 혁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문화로 바뀌는 시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시기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자는 분별의 문화화도 관련이 됩니다. 더 작게 나누는 느낌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창힐도 문자가 생기면 서로 믿지 못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이집트 문자를 만들 때도 인간의 문자로 인해 게을러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사기의 원인이 됩니다. 법이 자세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법률에 안 나오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문자사회로 바뀌는 과정이 성인들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문자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구별하고 나누려는 태도는 역으로 성인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시는 주요한 성인들은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 부처나 예수가 모두 이 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더 깊이 고민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문자 사회마저 넘어서 영상이나 정보가 순식간에 세상을 감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에게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환기를 사는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은 비대면(非對面)의 세상으로 급격히 바뀔 거라고 예측합니다. 맞습니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바뀌었듯이, 수렵 채취 사회에서 농경 목축의 사회로 바뀌었듯이 이는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인류의 지성과 영성에 한 단계 도약이 있었음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 공자나 부처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류의 스승이 들려준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고전(古典)을 읽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전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과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세상은 비대면 사회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 의료진의 날을 맞아

사할린 중앙학센터의 황수직 내과 의사

"의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2면의 계속)

시병원에서 몇 년 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사회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양로원 시설의 의사를 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월급도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딸들과 남편을 살려 먹어야 했다. 한때 중병에 걸린 남편을 잘 돌봐주어 병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고 딸들의 교육도 무사히 잘 시켰다. 딸이는 엄마 따라 의사가 되었고 막내는 엄마가 보기엔 의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7년 전에 황 선생은 다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과 1급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암환자 치료에 나섰다. 이 일이 마음에 든다는 황수직 선생은 "의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의사가 된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 직업이 먹여살리

고 하고 사람을 완치시키는 기쁨도 줍니다."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지만 암센터 의사들은 계획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특히 화학치료를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이 선포한 2개월 격리상태에서도 황 선생은 계속 환자 치료를 하였다. 그런데 비뇨기과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되어 지난주부터 황 의사도 간호사와 접촉한 사람으로서 검진 테스트를 받고 있고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터뷰도 전화로 하였다. 경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황 선생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계속 마스크도 착용하고 장갑도 끼며 의사로서 방역 수칙은 더욱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한 출판물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한다. 표현이 좋아서 적어두기도 했다며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은 침착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십시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이다.

근면하고 강단이 있고 활기찬 목소리로 에너지를 심어주는 황수직 선생의 헛되지 않은 삶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최근에 그는 건강관리로 토요일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며, 4년 전에 손녀가 생긴 후로 손녀와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녀는 말한다.

(배순신 기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00여개 동포 언론 역량강화 나선다

정부 4억여원 예산 받아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사업 추진

세계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는 200여 개 동포 언론사를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세언협)는 올해 정부로부터 4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동포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지원과 소속 언론인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세언협은 그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하던 '동포언론 지원 사업'을 대행한다. 국내외 언론인 연수를 비롯해 콘퍼런스, 고국 기획취재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공익광고 게재 등이다.

세언협은 공익광고 게재와 고국 기획취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회원사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120개 언론사를 선정했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어느 정도 완화하는 10월께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겸 국제심포지엄, 차세대 한인언론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봄에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한인언론인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됐다.

전용창 회장은 "10월에는 세계한인의 날,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열리는데, 이를 취재해 보도할 수 있도록 단체 행사를 연계할 계획"이라며 "그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언협은 2002년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가 열리면서 태동한 '재외동포기자연합회'가 전신이다. 그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봄과 가을 행사를 열었지만, 올해처럼 정식 예산을 받아 동포 언론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익환 세언협 사무총장은 "올해 첫걸음을 내딛지만,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하면 내년과 그 이후에도 사업이 성장해 궁극적으로 동포 언론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용자들은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이에 가수의 팬들은 댓글로 '고향 땅에 대한 노래를 듣게 되어 매우 반갑다.', '나는 사할린을 사랑한다. 이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다. 지구상 가장 좋은 섬. 이고리, 고맙네.', '사할린에 대한 추억을 안겨주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고리 니콜라예브의 히트곡 '사할린의 하늘 아래'는 약 1년 전에 작사되었으며 노래 초연은 8월 <2019 새로운 물결> 축제에서 이뤄졌다.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 День России прозвучала песня о Сахалине

12 июня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первый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ограничений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и звезды отечественной эстрады, в том числе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ец, уроженец Холмска Игорь Николаев. В День России он исполнил один из своих последних хитов, посвященных малой родине – песню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 небом».

Отрывок концерта певец выложил на своей личной странице в Instagram, где передал привет землякам-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ам 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нался в любви к Сахалину.

Душевное приветствие очень растрогало островитян и тех, кто когда-то жил на острове. Пользователи признались, что песня многих берет за душу, вызыва-

ет ностальгию.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лышать песню про свой родной край», «Я люблю Сахалин, и это не лечится. Самый лучший остров Земли. Игорь,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за память о Сахалине», – написали певцу благодарные поклонники.

Хит «Под сахалинским небом» Игорь Николаев написал около года назад. Премьера песни состоялась в августе на фестивале «Новая волна — 2019».

사할린 주민들, '청춘 등대' 대회 참가 초대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이 <청춘 등대> 경연대회의 출발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경연대회 결과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 청년대표들을 선발하게 된다.

러시아 전역 및 행정지역 간, 지역과 현지 아동 및 청년 사회연합회와 비영리단체들의 지도자와 대표들, 봉사적, 사회적 목적으로 공익 활동을 수행한 시민들, 봉사활동 조직 부문에 혁신과 성공을 이루고, 사할린주의 자원봉사 지원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이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경연 참가자들의 참가 영역은 다음 몇 부문으로 나뉜다. <청년의 동력/지도자>, <청년의 동력/팀>, <순수하게 돕기>:다.

경연에 참가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주소 (a.neustroev@sakhalin.gov.ru.)로 보내야 한다. 우승자는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결과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는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주소: 코무니체스키 프로젝트, 39. 사무실 211호. 전화: 24-

09-80(알렉산드르)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Молодежный маяк"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яет о старте конкурса "Молодежный маяк". По его итогам выберут лучш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еж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По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лидеры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стных детских и молодеж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е, осуществляющие добровольную, социально направленную,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ез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достижения и инновации в сфере организации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несши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у волонтер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курсанты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минациях:

"Энергия молодых/Лидер". "Энергия молодых/команда", "Помогать просто".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конкурса, необходимо заполнить заявку и отправить ее на почту a.neustroev@sakhalin.gov.ru.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выбирать с помощью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подведут в сентяб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9, оф. 211.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24-09-80 (Александр),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사할린주,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